

청춘이라는 돛대 달고 떠나자!...저 거친 예술의 바다로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오는 15일까지 제8기 입주예술가 발표전 '아무 생각 없음·있음'

청년 예술인 7인, 사진·영상·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실험 성과 교류

시각예술, 음악, 마당극, 낭송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발표전이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남구 사직길 12) 제8기 입주예술가 발표전 '아무 생각 없음·있음'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8기 입주작가들은 총 7명으로 이날 전시를 통해 회화·사진·영상·설치 등 30여점과 음악·마당극·퍼포먼스 등 그간의 교류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먼저 김민경 작가는 '아이러니'를 주제로 작품을 설치한다. 지난 전시 주제인 '순환'에 이어 생태에 관심을 갖고 잘 사라질 수 있는 재료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사라짐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남게 되는 잔재나 쓰레기를 통해 창조와 소멸 사이 놓인 아이러니를 나타낸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운명으로 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우리 식탁 위 부분별한 육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한다.

김선화(김기린) 작가는 '불안의 서'를 주제로 종합 매체 작품을 선보이며 입주예술인들과 협업으로 낭송회를 펼쳐 보인다. 자

신을 '순간 수집가'라 일컫는 작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겪으면서 능동적으로 순간을 만들어내고, 이를 글과 이미지로 기록한다. 그의 낭송 퍼포먼스는 영어와 한글 텍스트를 두 사람이 함께 낭송함으로써 음을 섞는 형태다.

무용 예술인 김유진은 '고립'을 주제로 자신의 무용과 영상을 융합한 종합예술작품을 선보인다. 그중 한 영상은 평소 자신의 생활과 연습 장면을 영상 스케치한 것으로 마치 화가들이 본 작품에 들어가기 전 에스키트한 것과 유사하다.

음악 예술인 박성연은 센터 옥상 공간에서 '옥탑방 오월'을 주제로 한 음악 공연과 설치 작품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1980년 태어나 책으로 역사를 이해했을 주인공 '어니'와 그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사건을 다룬다. 또렷한 자신의 기억이 아닌, 간접적으로 역사를 이해했을 어니가 풀어낸 이야기가 기대된다.

염기준은 그의 시리즈 작업 '캐피행성' 캐릭터 입체 작품을 통해 '중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질중심 문명사회, 계급사회, 진화, 자본주의를 키워드로 변하지 않는 사회 구



김유진 '에텐 2023 공연포스터'

조와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영국인 장도국은 입주예술인들과 함께 마당극 퍼포먼스를 연다. 해학과 풍자로 민초들과 함께 호흡한 마당극이 타 분야 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하나의 장을 펼쳐낸다.

최윤정 작가는 지난 9월 첫 번째 입주예술인 전시에서 이어 이번에도 '화원'을 주제로 삼고 꿈과 몽상의 이미지를 끌어온다. 작가는 시간의 중첩을 통해 이미지의 우열을 파괴하고 사건을 나열한다. 이를 통해 내가 바라



최윤정작 '1AM'



염기준작 '캐피행성-생존자들'

보는 세상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우리 삶을 비현실적인 여정으로 풀어낸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담론 생산과 다양한 예술실험, 장르 간 융합 모멘텀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자리"라며 "그간의 교류 및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김선화작 '원맨 카페 프로젝트 살롱농소하 프로젝트 플러'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미래·우주의 시간

무등현대미술관, 오는 15일까지 '광주 센서리움: 미디어아트'展

'21세기 동시대 예술가들이 펼쳐는 공감각적 이야기'

다양한 미디어방식 작품을 한 자리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15일까지 '광주 센서리움: 미디어아트' 전시를 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은 이번 전시는 김일권 전남대 교수와 공동연 2022강원국제트리엔날레 감독의 공동 기획으로 구성됐다.

전시에서는 영상작업, 설치,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 이미지의 다양한 변환

을 만들어낸 인터랙티브 작업 등 다각적 작업 결과물을 선보인다.

'센서리움'은 뇌의 피질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감각의 중추를 가리킨다.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 등 서로 다른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가 뇌 각지에 퍼져있고 인간은 최대한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을 연결해왔다.

전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시각적 정보의 파장을 움직임, 시간적 추이, 리듬감, 촉각 등 비시각적 정보와 결합하고 전이시키는 과정에 주목했다.

전시 구성은 '시간'에 집중하는 3개 파트로 이뤄졌다.

먼저 '센서리움: 우주적 시간'에서는 한승구·안종연 작가가 펼쳐낸 영겁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찰나적 순간을 다루는 '센서리움: 감각하다'에서는 김혜란, 오창근 작가의 가상세계에서 이야기, 오브제, 타이포가 시시각각 변화되고 독립적인 리얼리티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센서리움: 미래의 시간'에서는 심승욱, 송은성 작가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시간적 추이를 관객이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작품 속에 수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김일권 작가의 생태예술은 완벽하진 않지만 인류의 위기를 적어두 막아줄 수 있는 미래를 상정하면서 물리적



김일권작 '고장난 자연'

시간을 뛰어넘어 추상적 개념에 입각한 미래적 시간을 보여준다.

/최명진기자

호남 정체성·시대정신 고찰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약무호남 시무국가...' 세미나 성료

호남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호남인의 구국충절 의식을 재조명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김중재)는 지난 4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시대적 의미' 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은일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이순신의 호남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양란과 보성의병' ▲김동하 전 서영대 교수 '장성 남문장의 맹주인 김경수

공의 생애와 활약상'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의 총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나 전략 중심 접근이었던 것과는 달리 총무공이 호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이를 토대로 한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기에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김중재 회장은 "나이, 신분의 구별 없이 의로써 일어나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용기가 호남정신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조명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